야시마지 절

야시마지 절은 야시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754 년, 일본에 불교의 율종(律宗)을 창시한 중국의 승려 감진(688~763)이 야시마 북쪽에 창건했다고 합니다. 9 세기 초에 승려 구카이(774~835)에 의해 진언종(眞言宗) 사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나아가 대지(臺地) 남쪽의 현재 장소로 이전했습니다. 시코쿠 88 성지 순례의 84 번째 성지입니다.

본당에 안치되어 있었던, 절의 본존인 천개의 손을 가진 자비의 보살 천수관음상은 구카이가 조각했다고 하며, 현재는 보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천수관음상과 본당, 1223 년의 범종은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원의 보물관에는 천수관음상 외에 불상, 1185 년에 일어난 야시마 전투에 관한 자료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본당 옆에는 어떤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는 전설의 너구리 정령인 미노야마다이묘진이 모셔져 있습니다.